

보도 일시	2023. 3. 15.(수)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3. 3. 15.(수) 09:00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석 (02-2110-1450)
		담당자	사무관 윤영란 (02-2110-1451)

## 방통위, 국민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 미디어교육 추진

- 2023년 전국 500여 기관과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조한규)은 이 달부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0여 기관에 미디어 교육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 적극적 참여와 창작 등을 지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교육을 말한다.

이번 미디어교육 지원은 정부 국정과제 「전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대상 기관에는 10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교육 전문가가 파견되어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장비 대여는 물론, 교육 대상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지원된다.

올해 2월 진행된 미디어 교육 지원공모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노인·장애인·다문화·여성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신청하여 미디어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주요 부문별 지원 현황을 보면, 유아부문은 지원 대상의 5배가 넘는 307개 기관이, 자유학기(년)제·동아리·고교학점제 등 청소년 부문에는 모집대상의 2배가 넘는 419개교가 응모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새롭게 추가되어 12개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노인·장애인 부문은 60개 기관 지원이 가능한데, 147개 기관이 신청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는 나와 타인이 시공간을 넘어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모든 수단”이라며, “방통위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급증하는 미디어 교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개별의 삶의 주기에 맞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